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소비자 담당

발 신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전화 02-575-9264 핸드폰 010-6205-9263 이메일 cicri2017@gmail.com)

제 목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신임공동대표 선임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신임 공동대표에 한창희 교수 · 강정화 회장 · 조윤미 공동대표 선임

창립 8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신임 공동대표단, 이사회 재구성
디지털경제전환,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여 금융소비자를 위한 활동 강화할 것 !

-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공동대표 한창희·강정화·조윤미)는 지난 5월10일 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공동대표로 한창희 교수 (전, 국민대학교 법학과), 강정화 회장 (현,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조윤미 공동대표 (현,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를 선임하고 15명의 이사를 승인하였다.
-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지난 2013년 11월 ‘부실채권 소각운동 및 대부업광고 반대운동’을 시작으로 7개 시민사회, 소비자단체가 연대하여 출범하였으며, 이후 2016년 4월 18일 금융위원회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여 활동중이다. 지난 8년동안 빚제로 다시살기운동제안 기자회견 및 부실채권 소각운동을 비롯하여 총18차에 걸친 금융소비자포럼을 개최하였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금융소비자역량강화를 위한 리더십개발사업, 뉴미디어를 활용한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사업, 반려동물 진료비 투명성, 예측성 강화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 운동을 전개하였다. 현재 금융소비자네트워크에는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사)소비자권익포럼 등 소비자단체를 비롯하여 금융소비자연맹, 주빌리은행, 금융과행복네트워크 등 금융전문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 이번 총회에서 신임 공동대표로 헌신하기로 한 한창희 교수는 금융관련 법 전문가로서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강정화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대표 소비자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을 이끌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 요구가 많은 금융소비를 위한 활동에 단체 역량을 투입하고자 이번에 공동대표를 맡게 되었다. 조윤미 공동대표는 그동안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운영위원장으로 단체 실무 및 행정을 총괄하여 왔다. 현재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신용회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불완전판매의 완전한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과 금융소비자피해 구제 시스템 재구축, 디지털 금융 소외,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활동을 통해 약탈적 금융에서 포용과 안전망으로서의 금융시장으로 전환해 나갈 수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 새롭게 출발하는 금융소비자네트워크에 많은 관심과 참여, 후원을 바란다 (홈페이지 www.fcn.or.kr)

2021.5.26.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공동대표 한창희·강정화·조윤미